# 오리털파카신

신이 거대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다.

인간은 오리털

파카에 갇힌 무수한 오리털들, 이라고 시인은 쓴다.

이따금

오리털이 삐져나오면 신은 삐져나온 오리털을 무신경하게

뽑아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오리털

하나가 뽑혔다.

그 사람이 죽었다.

오리털 하나가 뽑혔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떴다.

오리털 하나가 뽑혔다.

그 사람의

숨통이 끊겼다. 오리털 하나가 뽑혔다. 그 사람이 사라졌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천사와 악마도 없

고 단지 한 가닥의 오리털이 허공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다 바닥에 내려앉는다, 고 시인은 썼다.

# 입장모독

신은 부하들을 시켜,

세계에 입장하는 이들에게 수고비

대신 코스트코 빵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이 태어났다. 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우리는 모여 골똘히 생

각했다. 왜 우리들은 빵을 받지 못한 걸까?

1.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목둘레가 해진 런닝구만 걸치

고 아랫도리 없이 입장하려 들었다.

1. 영국식 파이프 담배 모양의 영혼을 소망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을 했다

1. 성당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여자를 보며 그 모

습이 상처 난 부위에 딱지 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1. 매일 매일 신나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꿈과 현실을 바

꿔치기하고 싶었다

1. 신을 보며 저 사람은 소화기관에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1. 제대로 된 사람, 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2. 그래서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았다
3. 세상의 모든 도서관이 불에 탔을 때 구하고 싶은 책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2. 그래서 희망을 무서워했다
3. 그래서 미친 개가 자꾸 쫓아왔다
4. 그래서 뛰어, 뛰어, 뛰어다녔다

우리가 빵을 기다리고 있다

**“** **\*”**

1

카프카의

『소송』에는 사실

“ \*”라는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으며

\*표를 따라 작품

의 맨 뒷면을 살폈지만 각주에 대한 해설은 없다 그렇다면

“ \*”은 카프카의 문장인가,

카프카가 친구의 문

장은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쓴 문장을 카프카가 인용 한 것인가 “ \*”가 나의 눈에만 보이는 마당에 누 가 카프카를 도울 수 있을까

2

“ \*”에 관한 해답을 얻은 것은 내 머릿속 카프카의 어린 시절에서다 아이였을 때 카프카는

통화하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통화하는 엄마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코브라처럼 앉아 있는 작은 카프카를 나무라지 않았고 눈여겨보지도 않았을뿐더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했다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공간밖에는 인식할 수 없으며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3

냉장고 위의 코브라는 멀리 있는 나뭇가지를 굽어본다

4

그 후 카프카의 인생에서 “ \*”는 되풀이된다 나는 어제 잠을 설쳤어, 라는 카프카의 불평에 그의 애인

은 “노”라고 대답한다 누가 날 죽이려 해요, 라는 카프카의 주장에 카프카가 아닌 자들이 “노”라고 입을 맞춘다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하나입니다, 라는 카프카의 의견에 후대의 독자들이 입을 모아 “노”라고 대답한다

5

결국 카프카가 “ \*”를 쓴 경위는 다음과 같다

6

나는 카프카의 머릿속 냉장고 위에 앉아 있다 발 아래,

조용한 카프카처럼 무서운 것이 나타날 때면 다음 문장을 반복한다

멀리서 봤을 때 지구가 마침표라면 얼른

다음 문장을 써라

냉장고 위에 사는 코브라는 아주 고요하며 눈이 멀어 있 다

# 불면

누워서 나는 내 옆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내 옆의 새벽 2시는 회색 담요를 말고 먼저 잠들었다

이불 밖으로 살짝 나온 내 발이 다른 이의 발이었으면 좋겠다

애인은 내 죽음 앞에서도 참 건강했는데

나는 내 옆얼굴에 기대서 잠을 청한다

옆얼굴을 베고 잠을 잔다 꿈속에서도 수년에 걸쳐 감기 에 걸렸지만

나는 여전히 내 발바닥 위에 서 있었다 발바닥을 꾹 누

르며

그만큼의 바닥 위에서 가로등처럼 휘어지며 이불을 덮어도 집요하게 밝아오는 아침이 있어서

잠이 오면 부탄가스를 흡입하듯

옆모습이 누군가의 옆모습을 빨아들이다가

여전히 누군가 죽었다

잘 깎아 놓은 사과처럼 정갈하게

# 뇌와 나

떠날 때 애인이 뇌를 두고 떠났다.

갈아 마실 수도 있겠

다. 인간의 뇌를 살펴보고 만져본다.

노랑 가발을 씌워보고

눈을 감겨 보고 따듯한 물에 담가본다.

뇌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므로 환자는 머리를 열고 수술

을 받으며 베토벤

Symphony No. 9나 라흐마니노프

Prelude Op 23 No. 5를 들을 수 있으며 외과의와 뇌의 출

혈 정도와 수술 실패 가능성에 관한 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뇌는 인간다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니까.

뇌는 태연히 거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 있다. 그것은 난생 처음 푹신한 것에 앉아 본다. 콜리플라워 같은 얼굴로 창문 을 바라본다.

•

뇌는 마지막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놀이동산

회전목마가 돌아간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손을 흔든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도 울타리 바깥에서 손을 흔든다. 모두 괴이한 물체를 들고 있다 원통으로 된

투명 막대기 끝 손바닥이 달린 장난감

원통은 알록달록한 눈깔사탕으로 채워져 있다

손이 있으면서 손을 사서 기어이 손을 흔드는 사람들 그녀도 손을 흔드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다 앞머리가 바람에

넘어가면 보이는

그녀의 이마와 이마 위의

요점 없는 주름살 하나를 그녀는

떠올린다

뇌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일까?

•

실제 본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은 뇌가 지닌 유일

한 결함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DNA들이 피해를 입는

다. 뇌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억을 발생시키는가. 이

문제를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뇌의 신경 세포인

뉴런의 어원이 밧줄이므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밧줄을 이 용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뇌는 여전히 소파 위에 앉아 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뇌의 열기를 식힌다.

미야시타 야스시는 원숭이의 뇌에 전

극을 꽂고 측두엽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창밖에 누군가 매달려 있다.

창문은 미소를 과장하

는 측면이 있지,

넣는다.1)

미야시타 야스시는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모양을 보여준다)

원숭이들의 반응 : 반응 없음

(사람을 보여준다)

원숭이들의 반응 : 약간의 반응 후 소멸

(원숭이를 보여준다)

1) \*실제 실험

원숭이들의 반응 : 반응 지속

그는 불공평한 관심 쏠림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원숭이

는 왜 원숭이에게만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가.

어떤 사람은

그 사실에 섭섭할 수도 있다.

창문에 매달린 사람은 왜 비

오는 날에도 히죽 웃고 있을까. 그는 밧줄 없이 어떻게 21

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뉴런의 어원은 밧줄이므로 잊

고 싶은 기억이 떠오를 땐 밧줄을 친친 감아라.

•

뜨거운 여름

마당에 물을 뿌리듯 생각을 잠재우고 있다 머리로 귀를 덮은 사람 위를 덮는 하늘

을 덮지 못하는

밋밋한 구름

창문에 매달린 사람

호스 끝을 살짝 눌러 물을 세게 뽑아낸다

푸르딩딩한 물

에 맞는 화초들

인간이 물처럼 행동한다면 정체停滯란 발생하지 않을 거

야

밧줄 없이 창문에 매달린 사람 둘

연필을 거꾸로 잡아

끝에 달린 작은 지우개로 뇌의 측면을 꾹

누른다 뇌는 꺼지지 않는다 뇌는

아무것도 껴안지 않고 잠든 나무

아래서 은하수 같이 은은한 포자를 날리며 자는 늙은 버섯 대가리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해 누르자

몸을 움츠린다

주름 사이사이 검붉은 피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 고인다

떼자 부푼다

주름 사이로 차오른 피가 다시 스며든다

•

비스킷을 씹을 때

내가 씹는 소리는 내게만 크게 들리고 너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다

밧줄을 이용하자

내가 밧줄을 던질 테니 너는 손목에 밧줄을 묶어라 내가 씹는 소리가 너에게도 크게 들릴 것이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문

각각의 손잡이에 밧줄을 묶어 바람이 드나들게 하라

•

끊긴 부위가 많은 초록색 끈끈이 뉴런은 발 닿는 대로 뻗쳐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초록 페인트통을 쏟은 것 같아요 클라이스트는 대뇌 피질 기능 지도를 그리기 위해 연필

을 꽉 쥐었다 전자현미경을 꺼낸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은 나쁜 마음이에요

50억 배 확대해 보고야 마는 마음

뉴런의 연결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억이라는 끊기기 일보 직전의 낡은 밧줄이 하나 더 생긴다

•

나는 비닐장갑을 낀다 뇌를 두 손에 받쳐 든다

옆으로 펑퍼짐한 뇌를 꼼꼼히 살핀다

씹어보지 않아도 질긴 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뇌는 눈을 비비거나 침을 흘리지 않지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아

어느 곳에서 봐도 옆얼굴이어서 눈을 마주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주름에는 피가 차오른다 주름이 굵고 선명하다

•

이것은 창문에 홀로 매달린 이의 이야기이다